



2017년 4월 30일(제824호) 부활 제3주일(이민의 날)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찬미예수님! 부활 대축일이 끝나고 마치 휴가처럼 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보통 엠마오를 간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엠마오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즐거운 여행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만나게 되는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는 실망과 좌절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로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허무할 정도로 나약한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희망은 사라졌고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부활을 모르는 이들,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들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복음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걸어가는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 시련과 고통, 죄와 죽음 앞에서 쉽게 좌절하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떠나는 삶의 여정인 엠마오 길은 어떻습니까?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길입니까? 아니면 슬픔과 좌절, 원망과 후회가 가득 찬 길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과 당신이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빵을 떼어 나누어주시는

성찬의 식탁에 초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바로 그분께서 부활하셨음을 당신의 제자들이 깨닫도록 천천히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그들이 처음에 알아보지 못할 지라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머무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받아모시는 성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의 불꽃이 우리 마음에서 타오를 수 있도록 온갖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1독서).



이민호(비오로) 신부
법석(육군 제23사단) 상당 주임

- 제 1 독 시** 사도 2,14,22ㄴ-33
회 답 송 ◎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제 2 독 시 1베드 1,17-2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 음 루카 24,13-35
영 성 제 송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알렐루야.

진례를 살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 본기도(모음기도)

그런데 사실 다른 제삼자가 하는 기도를 마음으로부터 진정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만의 말을 한다면 이는 잘못된 기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8,27)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주님의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는 맺음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 청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받아 주신다는 우리의 확신이며 위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아멘!”이라는 말로 이 기도에 응답합니다. 이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또는 “예, 그렇게 되소서.”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공동체는 사제의 기도와 하나되며 마치 기도문 아래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모든 역경에서 해방시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고통이 제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올려지기에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외관상으로 보아 “아멘!”에 대한 자의식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보다는 옛 교회 안에서 더 생생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야 어떻게 교부 성 예로니모께서 로마의 바실리카 안에서 “아멘!”이라는 소리가 마치 천둥소리처럼 그 넓은 공간을 울렸다고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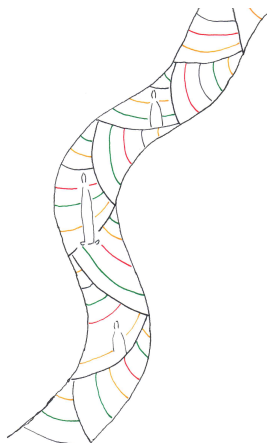
시작 예식은 본기도(모음기도)로 끝맺습니다. 공의회 전의 미사경본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하나의 본기도만 바칩니다. 이 규칙은 봉헌기도와 영성체 후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7개의 기도

까지 바칠 수 있었습니다. 본기도는 사제가 교회와 하느님 백성의 이름으로 바치는 주례 기도이기 때문에 사제가 임의로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못합니다.(미사경본 총지침. 24항) 기도 본문은 로마 전례의 전통에 따라 간단명료하고 법적인 문체로 되어 있으며, 전례 시기나 축일 또는 해당 미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하느님 호칭과 간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성격상 주례자는 교우들이 이 기도를 마음으로 같이 바칠 수 있도록 천천히, 명확히, 정성껏 바쳐야 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주례자의 기도들과 마찬가지로 본기도도 두 손과 팔을 펼쳐 들고 바칩니다. 사람들은 이 자세를 로마의 카타콤바 벽화에 그려진 모든 기도하는 형태를 본받아 ‘기도하는 자세’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할 때 팔을 들어 올리고 양손을 펼치는 형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상기시켰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같은 기도 자세가 그리스도께서 이 미사전례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우리의 친구자, 우리의 대사제이시라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 암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두 손을 모으는 기도자세(합장)는 암시하는 바가 큼니다. 한때 중세의 기사들이나 제후들은 왕이나 또는 다른 군주들 앞에서 충성서약이나 생명서약을 할 때 자신들의 합장한 손을 그들에게 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 봉사하고자 한다는 의의를 상징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하느님 앞에 선 우리 또한 이 의미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집지 별책』

복 음 묵 상



- 베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흐르는 강물 따라

가꿈은
무릎
어떨 때
가슴까지
모르는 사이에
몸을 넘기는
위기의 순간을
넘기고 넘겨 가며
나
한낱 한낱
임께
나아갑니다.
흐르는
이 강물위에서.

상화이야기

엠마오의 저녁식사



카리비지오 (1571-1610)
1601년 작, 캔버스 위 유화 141 x 196.2 cm
니셔널 갤러리, 영국 런던

그림 속 등장인물들의 크기가 실제 우리와 비슷하여, 마치 눈앞에 있는 광경을 바로 가까이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 그림은, 예수님과 같이 여행하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놀라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렸다.

왼쪽에 우리에게 등을 보이고 앉아있는 제자는, 오른쪽 팔 뒤꿈치가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있는데, 마치 의자에서 벌떡 일어설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혹은 의자에서 놀라 떨어지거나), 오른쪽의 제자는(순례자를 뜻하는 조개껍데기를 가슴에 달고

있다) 양팔을 벌려 놀란 몸짓을 하고 있다.

이 제자의 양팔을 벌린 깊이가 그림의 깊이와도 같은데, 식탁의 끝에 놓여있는 과일 바구니는 마치 곧 떨어질 것처럼, 가장자리에 간신히 걸쳐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놀라는 동시에, 이 과일바구니를 떨어지기 전에 받아야 할 것만 같다. 그래서 식탁의 오른쪽 빈 공간이 우리를 위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우리는 엠마오의 저녁 식사와 같은 신비를 매일 미사에서 목격한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강렬한 감정을 느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 해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김은혜(갤러리시앳)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들 위한 미사 - 부활 제3주일: 테크 유한식 신부

◆ 교구장 동정

- 중평 103위 성인(37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4월 30일(주일)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니희는 온 세상에 기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